

TV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00 그 여자 그 남자(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00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재)	50 인간극장		0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사랑했나봐〉	05 KBC 뉴스지금 30 모닝와이드 3부
[8]	10 새 대통령에게 비란다 〈사·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40 김부정의 경제특급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활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나라서 좋아〉
[9]	40 신문으로 보는 세상	30 KBS 뉴스	00 TV 소설 〈사랑아 사랑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30 SBS뉴스
[10]	40 논설실장 세상보기 황초택의 '눈을 떠요'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한 세상			
[11]	50 뉴스현장	00 교실이아기 55 바른말고운말	10 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 50 수목드라마 〈전우치〉(재)	00 찾아라! 맛있는 TV 스페셜	00 SBS 생활경제 30 KBC 생활뉴스 50 SBS 12뉴스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마을이아기 올망졸망 스페셜	30 건강클리닉
[1]	20 개국 1주년 특집 글로벌 착한식당(재)	00 KBS결착전 (브레인)(재)	10 영화가 좋다(재)	10 MBC 파워게저전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스페셜
[2]	30 김광현의 텃밭평명	00 KBS뉴스 10 현장로동 동행		00 MBC 2시 뉴스 1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스페셜	00 SBS뉴스 10 세네모토
[3]	40 이연경의 직언직설	00 아름다운 사람들(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오강만족 세상은 맛있다(재) 30 KBS 뉴스타임 35 후토스(재)	00 MBC 3시 경제뉴스 10 키즈 어드벤처 여기가 어디야? 베스트	10 세상발견 유레카
[4]	50 박종친의 쾌도난마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네트워크 특선 〈모자이크-청원〉	00 오후의 초록가방(재) 30 TV유치원	00 뽀뽀뽀 아이조아 30 안녕 토토비	00 안녕 자두야2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두리둥실 동계공화 15 뽀뽀야 놀자 30 청진기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 퍼레이드 30 생활송 투데이 1~2부
[6]	00 뉴스와이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1~2부	20 생활송 전국시대	
[7]	20 관촬카메라 24시간	00 KBS 뉴스7 30 스카우트	45 일일시트콤 〈패밀리〉	15 일일연속극 〈오자룡이 간다〉 55 MBC 뉴스데스크	20 일일드라마 〈가족의 탄생〉
[8]	30 신년특집 국내최초 김정은 1년 북한 내부공개	25 일일연속극 〈함녀도 미스터김〉	20 오강만족 세상은 맛있다 50 비타민	50 신년특집 MBC스페셜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00 SBS 8 뉴스 30 KBC 8 뉴스 45 날씨와 생활 50 한밤의 TV연예
[9]	40 뉴스A	00 KBS 뉴스9		55 수목미니시리즈 〈보고싶다〉	55 SBS 대기획 〈대중수〉
[10]		00 디지털 원년 특별기획 환경스페셜 50 아름다운 사람들	00 수목 드라마 〈전우치〉		
[11]	10 분노왕	00 KBS 뉴스타임 40 신년기획 수요기획	20 신년특집 다큐 〈세계가 놀란 한국 음악 명재들〉	15 황금여장 라디오 스타	15 짝
[12]	20 박종친의 쾌도난마(재) ①:30 판관 포청천 2012	30 KBS 뉴스 40 클래식 오디세이 ①:30 KBS컬러다큐멘터리 〈아무르〉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①:00 세상의 모든 다큐 〈49년의 동행〉	35 MBC뉴스 24 ①:05 자원봉사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5 나이트라인 ①:00 말발라 영화산책(재) 30 한국의 숲 스페셜

EBS			
06:00 극한직업	〈신년특집 임마 최윤미의 행복한 육아일기〉	14:35 배웅너머	19:05 머물다사
06:30 성공! 인생 후반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4:45 영어유치원 요 가비가바	19:35 달라졌어요
07:00 착각폭죽 처형된	〈정신주의 복이 가득한 밥상	15:10 고장이 피파	20:25 지치네!네
07:30 꼬마 평민 왕구	—2편 어묵탕과 LA 갈비구이〉	15:35 착각폭죽 처형된	20:30 EBS 뉴스
07:45 꼬마버스 타요	11:20 세계테마기행	16:00 당동명 유치원1~3(재)	20:5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 1~3	〈곰준의 강 도나우 3부	16:30 클로이의 오솔웃장(재)	〈사람의 섬 수마트라 3부
08:30 뽀뽀뽀 뽀로로	—생명의 낙원 도나우 삼각주〉	16:45 춤추는 곰 공여(재)	—여인들의 땅 마냥까바우〉
08:45 춤추는 곰 공여	12:00 EBS 정오 뉴스	17:00 방귀대장 뽀뽀이(재)	21:30 한국기획
09:00 방귀대장 뽀뽀이	12:10 역사특강	17:10 디보와 노래해요(재)	21:50 EBS 다큐 프라임
09:10 디보와 노래해요	13:00 초등 2년 겨울방학생활	17:15 꼬마버스 타요(재)	〈굿모닝카호스탄 3부
09:15 뽀뽀뽀 뽀로로	13:20 초등 4년 겨울방학생활	17:30 달라지 카카(재)	—신의 선물, 130개의 모자이크〉
09:30 달라지 카카	13:40 초등 6년 겨울방학생활	17:45 뽀뽀뽀 뽀로로(재)	22:50 극한직업
09:40 클로이의 오솔웃장	14:05 함께하는 한국어	18:00 생활송 특목 보나하니 1~4	23:20 다큐 10+
10:00 부모		18:50 곤	〈스라소니, 야생으로 돌아가다〉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2013 수능개념 〈은주샘의 필(Feel)통(通)수학 I〉	11:40 1013 수능 길잡이 〈영어독해 구분 편〉	07:00 한국어능력시험(TOPIK)대비 강좌	15:50 사이언스 드라마 〈미래를 보는 소년〉
00:50 수능 길잡이 〈문학〉	12:30 박복의 이수리 만나는 경제	07:30 EBSe 생활영어	16:20 초등 2년 EBS 겨울방학생활
01:40 고1 예비과정 〈최민수의 수학〉	13:00 2013 고1 예비과정 〈오랜지의 영어〉	08:00 9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40 초등 4년 EBS 겨울방학생활
02:30 수능길잡이 〈김규호의 기하와 벡터〉	14:00 2013 수능개념 〈류성원의 가슴 떨리는 한국사〉	08:30 감정고시 교육 강좌	17:00 초등 6년 EBS 겨울방학생활
03:20 " 〈김경현의 미적분과 통계기초〉	15:00 2013 수능개념 〈영어독해 유형 편〉	09:10 중학 예비과정 " 〈국어(11)(2)〉	17:20 초등개념잡기 " 〈국어〉
04:10 " 〈곽정원의 수학II〉	15:00 2013 수능개념 〈이민수의 한국지리 I등급 프로포즈〉	09:50 " 〈영어(11)〉	18:00 이야기 한국미술사(1~2)
05:00 " 〈이현주의 수학II〉	16:00 2013 수능개념 〈이민수의 한국지리 I등급 프로포즈〉	10:30 " 〈수학(11)〉	19:20 세계의 아이들
05:50 " 〈김명수의 적분과 통계〉	17:00 " 〈이민수의 한국지리 I등급 프로포즈〉	11:50 " 〈영어〉	20:00 월초보 중학영어
06:40 고1 예비과정 " 〈국어〉	17:00 " 〈이민수의 한국지리 I등급 프로포즈〉	12:30 " 〈수학〉	20:40 초등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1)
07:30 2013 수능길잡이 〈독서〉	18:00 2014 대비 수능 스타트	13:20 중3 예비과정 " 〈수학〉	21:20 중급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1)
08:20 2013 수능개념 〈장인수의 물리II〉	19:00 " 〈박숙녀의 적분과 통계〉	13:50 변변한 영어	22:00 중급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2)
09:10 " 〈이희나의 화학II〉	20:00 2013 수능개념 〈이민수의 한국지리 I등급 프로포즈〉	14:30 끝판 초등국어 문법(1)(2)	22:40 중3 예비과정 " 〈국어〉
10:00 " 〈송정석의 생명과학II〉	20:00 2013 수능개념 〈이민수의 한국지리 I등급 프로포즈〉	15:10 사회가 속속!	23:20 " 〈영어〉
10:50 " 〈송원희의 지구과학II〉	20:00 2013 수능개념 〈이민수의 한국지리 I등급 프로포즈〉	15:20 한자교과 드라마 〈어린이 손자병법〉	24:00 EBSe 생활영어(재)

굿모닝 잉글리쉬	한자이야기	니하오 쑹구위	오하오우 니혼고
A little bird told me so 그냥 들었어요 A : Who's going to get the promotion? B : Mr. Park. A : How do you know? B : A little bird told me so. A : 누가 승진 할까? B : 미스터 박이야. A : 어떻게 알았지? B : 그냥 귀에 들렸어요. * 소문으로 그렇게 들었어요. = I heard it through the grapevine. * 저한테는 정보원이 있거든요. = I have my sources.	竭澤而漁(갈택이어) 다할 갈, 못 택, 말이을 이, 고기 잡을 어 갈택이어(竭澤而漁)는 ‘연못을 말려 고기를 얻는다.’는 말로,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먼 장래는 생각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진(晉)나라의 문공(文公)은 성북이라는 곳에서 초나라와 접전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나 초나라 병사의 수가 아군보다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병력 또한 막강하였으므로 승리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호연(狐偃)에게 조언을 구하였다. 호연이 말하길, “저는 예절을 중시하는 사람은 번거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움에 능한 자는 속임수 쓰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속임수를 써 보십시오.” 잠시 후, 문공은 이웅(李熊)의 생각을 물었다. 이웅은 호연의 속임수 작전에 반대하였다. “지금 속임수를 써서 위기를 모면한다 해도 완전한 해결책이 아닌 이상 간단하게 돌려맞추어 처리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이웅은 눈앞의 이익만을 위하는 것은 훗날, 화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걱정하였던 것이다. [출전] 『여씨춘추(呂氏春秋)』	可怜天下父母心 부모 마음 세상(天下)에서 불쌍(可怜·可憐)한 게 부모(父母) 마음(心) - kě lián tiān xià fù mǔ xīn. 중국에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묘사할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청나라 ‘慈嚮’(서태후)태후가 어머니의 70세 생일에 보낸 축하시구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자식 된 이가 부모 마음을 알기는 어렵지요. 부모가 되어보면 부모마음 안 다지만, 그 마음을 안 들 뵈합니까. 다들 부모보다는 자식을 더 챙기는 게 인간의 속성임을. “孝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공자님이 대답합니다. “父母唯其疾之憂 - 부모는 오직 자식이 아플까봐 걱정한다.”	いちまんえん あず 一万円お預かりしました。 만원 받았습니다 A : この雑誌はいくらですか。 B : はい、一割して8千円です。 A : 一冊お願いします。一万円札どうぞ。 B : はい、一万円お預かりしました。 A : 이 잡지 얼마입니까. B : 10%할인해서 8000원입니다. A : 한권 주세요. 만원 받으세요. B : 예, 만원 받았습니다. いちわり 一割する あず 預かる あず 預ける 10%할인하다 내가 맡다 남에게 맡기다
〈칼란스쿨·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	〈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 ☎ 02-2634-2007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아스키일본어학원 강사 남궁경일〉 http://www.kjasuka.co.kr ☎ 232-1503

연말 시상식 스타들의 재치 있는 말말말~

윤종신 “강호동씨가 수훈 갑…큰 기회 줬다”

지상과 방송 3사 연말 시상식이 모두 막을 내리고 계사년 새해가 밝았다. 빛나는 스타들의 외모만큼 그들의 재치있는 입담 또한 시청자를 즐겁게 했다. ▲어떻게 브라우니가 뜰 줄 알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몰랐습니다(서수민 PD) = KBS '연예대상'에서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상에 선정된 '개그콘서트'의 서수민 PD는 올 한 해 개그맨 못지않은 인기를 누린 '정어사'의 브라우니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경규 선배님, 동영이 형 프로그램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월요일은 쉬게 됐습니다(유재석) = SBS '연예대상'에서 2년 연속 대상을 거머쥔 유재석은 최근 급작스럽게 폐지된 MBC '놀러와'를 의식하며 이같이 말했다. ▲위기를 준 강호동 씨가 수훈 갑(甲)이다. 우리에게 큰 기회를 주셨다(윤종신) =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윤종신은 '지난 2011년 저의 하차로 위기를 맞은 '황금여장'을 구해냈다'는 강호동의 칭찬에 이같이 화답했다.

▲죽을 각오로 나왔지만, 찍는 데 정말 죽을 것 같다(조승우) = MBC '연기대상'에서 '마의'로 대상을 받은 조승우는 자신의 첫 TV 드라마 촬영 소감을 이같이 전했다. 그는 앞서 최우수상 소감 수상에서 "(드라마를) 저는 잘 못하겠다"며 "대본도 늦게 나오고, 밤도 샌다. 50회까지 마무리 잘해서 빨리 무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무대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어머머마한 상이다. 이 상은 '골든타임'을 같이 한 모든 배우들의 맘과 피로 만든 상이라고 생각하겠다(이성민) = MBC '연기대상'에서 방송3사 PD가 뽑은 연기자상을 받은 '골든타임'의 이성민. ▲제가 스무 살 때 처음 극단에 들어갔을 때 들은 단어가 '광대'라는 단어인데, 미칠 광(狂)인 줄 알았다(곽노원) = SBS '연기대상'에서 '유령'으로 특별연기상을 받은 곽노원은 첫 방송상 수상 소감으로 이같이 전했다.

▲아이들이 없고, 스타가 없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손현주) = SBS '연기대상'에서 '추적자'로 대상을 거머쥔 손현주는 수상 소감으로 "(우리 드라마가) 사실 관습이나 기대를 받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상은 예상을 조금은 하고 왔다. 학교 다닐 때도 1등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1등해서 너무 기쁘다(김남주) = K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품에 안은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김남주는 수상 후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저는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크합니다. 그런데도 KBS에서 수십년 드라마를 했지만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상을 한 번도 타지 못했습니다. KBS는 각성하라! (윤여정) = KBS '연기대상'에서 윤여정은 '개그콘서트'의 코너 '희극 여배우들'을 패러디하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윤종신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일(음 11월 21일 戊辰)	
	36년생 인내로써 해결할 수 있다. 48년생 거시적 관점에서 관계를 가져라. 60년생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 72년생 말 못할 애로 사한이 있으니 살펴봐라. 84년생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임을 알라. 행운의 숫자 : 77, 19		42년생 엉뚱한 데로 흘러갈 수도 있다. 54년생 과감히 떨쳐버려야 추진력이 생기는 법이다. 66년생 느긋 그대로 인식해야 착오가 없다. 78년생 겉으로는 뜻을 같이하는 체 하지만 속마음은 제각각이다. 행운의 숫자 : 43, 17
	37년생 확실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49년생 깊이 파고들어가 보면 드러나게 된다. 61년생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리라. 73년생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겠다. 85년생 매우 수월한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4, 63		43년생 무의식중에 흘린 말이 말쑥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55년생 평소애 하고 싶었던 것을 해야 능률도 오르고 효과도 있다. 67년생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자. 79년생 인간관계와 체제가 중요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10, 51
	38년생 조리에 맞지 않는 것은 폐기하는 것이 옳다. 50년생 쇠잔했던 운로가 소생하기 시작한다. 62년생 체계적인 정리가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74년생 난감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02, 58		44년생 말 속애 숨은 속뜻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56년생 현저한 변화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68년생 다양한 오프 동결되거나 정체되는 모습이다. 80년생 신념과 현실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하리라. 행운의 숫자 : 35, 24
	39년생 주변애 신경 쓰다가 땀겨 될 수도 있다. 51년생 그냥 지나치려 않는 것이 좋다. 63년생 겉으로는 복잡하더라도 가닥을 잡고 보면 의외로 쉽다. 75년생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행운의 숫자 : 74, 06		45년생 노하우를 잘 활용한다면 행운이 따르리라. 57년생 금급증을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 69년생 대충할 것과 완벽하게 할 일은 구분하는 것이 좋다. 81년생 기본적인 취지에서 벗어나면 아니 되겠다. 행운의 숫자 : 70, 82
	40년생 열린 마음으로 체제한다면 환영을 받을 것이다. 52년생 기왕이면 호환성을 따는 것이 좋다. 64년생 조진들이 모아져서 현실화될 수 있다. 76년생 약간만 신경 쓴다면 결실을 거둘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27, 38		46년생 제대로 비교해 보아야 한다. 58년생 환경애 잘 적응하는 것이 이주 중요하다. 70년생 알리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느니라. 82년생 바탕이 좋아야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55, 96
	41년생 무가치하다면 여과해버리는 것이 좋다. 53년생 장담하고 나면 머지않아 후회하게 될 것이다. 65년생 강한 신념이 바탕이 되어야 오래가게 된다. 77년생 의외의 도움을 받고 빠른 진척을 보이겠다. 행운의 숫자 : 13, 46		47년생 참된 뜻을 알게 되는 진귀한 계기다. 59년생 인식하였다면 즉시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 71년생 새로운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전환기에 와 있다. 83년생 작지만 알찬 결실을 이루게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62, 6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영!" ☎010-9790-8237			